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학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책임> <편지> ● 본필: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89호
서기 2000년 10월 11일 수요일 23

법공양 페이지

둘 아니게 인연 지으면 살기 편해요

비가 오다가 딱 그치니까 햇살이 비치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둠이 걷히고 빨리 밝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즐기기도 해서 농칠 때가 많겠죠. 우리는 지금 천리 길을 막 걸다가 '아, 이거 한걸음이면 되겠구나' 하는 걸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천리 길을 가다가 걸나를 몰라서 천리 길을 천리 길대로 걸어야 하니깐 말입니다. 이 뜻을 잘 아시는 분 같으면 즐기들 마세요. 즐 것 같으면 에너지가 안으로 숙여 들고 바깥으로 승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관하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는 그 뜻을 똑똑히 잘 아세요.

내가 수차례로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사람까지 진화할 때 그 생명체의 근본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체가 생기고부터 그 모습이 변화하는 거죠. 모습이 한계가 있고 할나가 있고 또 할나가 있고 할나가 있는 반면에 다시 형성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해야 할 수 없는 그 수없는 나날을 지내왔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본다면 그냥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다. 그래서 왔을 때에 여기를 왔다고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한테 어떤 방편으로 얘기를 해야 할지 잘 알아들었나 하고 아무리

통신처 즉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생명력이 없으면 송장이나 다름없으며 생명력이 없으면 인태가 되지를 않으니깐요. 제가끔들 생명체로 제가끔들 신이예요.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렇다만 전부 생명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모을 수 있고 결할 수 있고 틀 아니게 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응신으로서 천차만별로 나뉘면서 만남이 있는 거죠. 공음으로요.

질문1: 진주지원에 이병용입니다. 먼저 진주지원 신도들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큰스님의 하해 같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진주지원 신도들의 질문 세가지를 한 가지씩 차례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큰스님 법문을 들으려 선원에 다닌지 약 2년이 돼 갑니다. 무조건 주인공에 일임하라 하셨는데 저는 스님들께 생활에서 오는 여러가지 일들을 상담하는 것이 자력신앙을 강조하시는 가르침에 어긋나다고 여겨 큰스님 친견이나 기타 스님들께 상담하지를 않았습니다. 스님을 친견하는 것과 그냥 모두가 주인공에서 들고 남을 믿고 놓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요.

생명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모습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아픔을 나와같이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죠

나와 주인공 함께 있어

스님: 다르지 않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해서 생긴 믿음과 감(感)이 있죠. 감, 내가 믿는 마음이 결핍없이 그냥 믿는 다. 여기 물이 들어 있으니깐 그냥 믿고 마실 때 아무 생각없이 마신다. 이런 거나 똑같죠. 그런 것이 있다면 천 리 만리 떨어진 것도 그 당시에 같이 한 자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게 같이 앉았어도 호흡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이것은 자기 주장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냥 이름만 붙였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주인공하고 따로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나 따로가 아닙니다.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것은 역대에 내려 오면서 자기를 형성시켜 왔고 이끌려고 애쓰는데도 본인이 거기에 들지를 못해 오. 항상 이름만 붙였지 이래 위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 걸음 걸기가 참 무겁다 이런 소릴 하게 되죠.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질문1: 스님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천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도재를 모실때 영가를 보시느냐고 스님들께 여쭙더니 조상 영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을 북돋아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도하는 조상의 모습을 못보면서 어떻게 재사를 모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위로 먼 조상님들은 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바로 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같이 모시고 살았다면 그 분들의 상호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오신통에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도, 어디서 온 줄 아는 것도,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놓고 응신으로서 응용하라. 보는 것을 본다 하지 마라,



그림 · 최주현

물질계만 아닌 정신계도 밝아지도록 나쁜 생각하면 벌써 나부터 좋지 못해

그건 도(道)가 아니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스님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봐도 본 사이 없이 바라, 해도 하는 사이 없이 하라, 가고 돌아 오면 되라 하고 온다 말하지 말고 걸림 없이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말에 꼭지를 물고 놓이기 때문에 잘못 빛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 회향님 일가 집인데 거기서 재사를 지내러 왔는데 처음 오시는 분을 데려왔어요. 그 분의 부모님이 난리 때 어떻게 돌아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은 못하고 왜 부모를 담요에다 이렇게 싸서 아무렇게나 그냥 물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때 난리 때에 담요를 깔고 돌아가셔서 담요 깐 채 그냥 말아서 치웠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잘못 됐습니까 하고 물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죽어서의 그 모습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면 보는 사람이라면 뭐가 좋겠느냐. 그리고 부모에게 참 공경이라기보다 은혜라기보다 그런 떠나서라도 좀 모양새라도 보기 싫지 않게 정성껏 잘 모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러구선 인제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친척 분이라고 그러면서 또 누굴 데려왔는데 그 때는 저열이 법당이였어요. 그런데 법당에 그 조상님이 올라가시는데 말이예요. 발뒤꿈치에 이만한 솜 한 덩어리가 달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봤어

요. 솜 한 덩어리를. 그래서 자세히 보고는 재사를 다 지내고 난 뒤에 그랬어요. "왜 조상님의 발뒤꿈치에 붙은 솜은 딱히 해요. "그거를 떼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대답이 "발뒤꿈치가 부스럼이 나서 떼지 못하고는 그냥 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솜은 떼지를 못했나 하더라도 어떻게 소독약이라도 잘 발라서 다른 필로 딱 붙여놓지, 어떻게 그렇게 승상스럽게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도 기가 막혀 해요. "그거를 떼지 못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보고서 봤다고 하는게 옳습니까, 봤어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냥 떼버리게 옳겠습니까.

모습 아닌 마음 찾는법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묻는 분만 아니라 반 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 많죠. 6대조 할아버지라든가 5대조 할아버지라든가 증조 할아버지라든가 그 할아버지가 할 일을 다 못해서 태어날 때 그 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수가 있죠. 그 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모습을 아주 닮아서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이 모습이 변동이 됐기 때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닌 그 모습과 전자에 있던 그 모습이 양면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이 된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한 연고로 재사를 지낼 때에 조상을 본다 하더라도 봤다고 하지 마라, 또 그런 말을 묻질랑은 마음으로 연결이 돼서 조상님들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얘긴데만 조상님이 흥에 맞아 돌아가셨나 봐요.

피를 줄줄줄 흘리고 웃이 뭐 아주 말도 못해요. 그 상태로 그냥 들어와요. 그럴 때 만약에 스님이 모자라서 깨끗이 해드릴 수 없다면 문제가 크죠. 그런 걸 깨끗이 닦아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새 옷을 입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스님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스님들의 책임인 것이 뭐냐 하면 힘이 없이 하라, 응신이 된다 하더라도 응신으로서 힘이 없이 하라, 이게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조상님을 천도시킨 그 분의 꿈에 '참 고맙다. 나는 이렇게 잘 입고 목욕하고 이제 아주 세단차를 타고 간다. 참 고맙다. 너희들 잘 살 거니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흥에 맞아서 그랬는데 어느 때에 그랬느냐 하니깐 6.25 초기에 그랬습니다. 묶인 채로 그렇게 흥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음 공부 하는 분들이 왜 그 공부를 꼭 해야 하느냐. 그거를 씻어낼 수 없다면 생사에 그냥 고통을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서 구정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관음은 구정물이 들어와서 흉탕물이 된다면 그 고통을 산 사람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게 백지장 하나 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하라, 놓으라, 아주 믿고 놓으라, 입력이 돼서 그러니까 앞서의 입력을 없애야만 되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했다가 안하고 또 의심을 했다가 안하고 그러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러다가 그냥 망가지죠.

이런 예도 있었습니까. 아주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님, 병원에 가니까 기형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형아는 무슨 기형아야. 기형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꾸 관해" 그랬어요. 그 말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쉽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도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든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일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마는 지금 생각을 하니깐 고생이 아니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알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방법이 이렇게 잘나 잘나 들이고 내는 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 그것을 막상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때에 왜 그것을 떼지 않았느냐, 왜 담요에다 말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방바닥에 담요가 타서 그냥 죽게 만들었느냐, 왜 언제 돌아가셨길래 피를 그렇게 흘리고 계시느냐, 이걸 묻는 것이 그 후에 생각해 차라리 내가 안몰았더라면 하는 후회감이 들더군요. 아는 분에게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모르는 분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아깝게 아는 사람으로 고립되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알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알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부처님 전자에 계신 분들이 그 모습을 다 알지만은 그 모습을 안다고 하지 말고 함이 없이 해라 이런 말이죠.

질문1: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영탑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탑에 조상을 모시면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생전에 사이가 몹시 안좋은 분들을 한 곳에 모시므로 더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무의 세계에 대한 큰스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영에 영을 넣으면 하나
스님: 간단하게 물으시니까 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할텐데 자세히 알려드릴려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군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봉을 살았어도 둘 아니게 해놓으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게 하니깐 그렇지 그것이 해놔서 더 언짢다면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래서 그러죠. 잘 모르겠거든 너를 바라, 오장 육부를 다 지켜봐도 세로 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다 일체야. 일체 공체로 있다. 그러면서 공생으로 살며 공용을 하고 산다. 그러기 때문에 공체가 아니냐 그런 말도. 그래서 이 세상은 공식으로서 전부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일체 방법이다. 그 방법을 들이고 내는 것은 모두 지구의 주인인 여러분이 다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주인이라면 이 마음의 도리를 좀 알아야 국민이 살기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아까 물으신 것 중에 한데 해놓으면 오히려 더 언짢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때로는 꼭 한데 해놔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분만 그렇게 하고 한데 있어서 안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따로 해 주죠. 나는 그냥 천도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다면 그냥 천도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죠. 그것은 스님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에다가 영을 넣으면 둘이 아니게 되니까 좋고 나쁠 게 없다 이거 하고요, 과거에 그 분들이 살았던 전자를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서 떼어놓아야 되겠다 이렇다면 떼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복잡해요. 사람이 살았을 것이 복잡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마음을 세세히 다 살핀다는 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공생으로 항상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도 나도 다 태어나서 고생하고 이리저리 없기도 하지만 태어나

24면으로 계속

기쁜 안부를 남기고 싶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사이문